

광주FC 새 사령탑? 결론은 김학범

이르면 19일 전북 원정부터 지휘봉
부족한 재정 등 근본적 문제는 여전

K리그 클래식(1부리그) 광주FC가 2010년 창
단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년간 지휘봉을 잡았던 남기일(43) 감독
이 8월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남은 시즌 비상체
제에 돌입하게 됐다. 2012년 이후 두 번째 철폐
지(2부리그) 강등까지 걱정해야하는 시점에 선
장까지 잃은 광주. 7년차 시민구단의 운명은 어
떻게 흘러갈까.

남 감독은 사퇴 직후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남 믿고 따라준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뿐
이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만큼 '자
진사퇴'의 선택을 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

다. 2010년 팀 창단과 함께 코치로 부임해 7년
간 선수단과 동고동락했기 때문이다.

당시 코치 조년생이던 남 감독은 이후 수석코
치를 거치며 지도자 경험을 차근차근 쌓았다.
2013년 8월에는 전임 여범규 감독의 자진사퇴
로 감독대행을 맡아 2014년 클래식 승격을 이끌
었고, 2015시즌부터 정식 감독으로 선임돼 3년
가까이 팀을 지휘했다.

그간 성과와 성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며 높이 평가를 받았던 남 감독이다. 그가
사퇴를 고려한 시점은 7월 울산전 휴식이 무
렵이다. 광주 관계자에 따르면, 올 시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팀을 잘 주축해 준수한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최하위권을 계속해 벗어나지 못하
면서 감독 스스로 자책감과 무력감을 함께 드러
냈다고 귀띔했다.



김학범 감독

감독으로 확인됐다. 8월 15일 큰 틀에서 합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진다. 복수의 축구 인들은 "김
전 감독이 광주의 위기를 극복할 소망수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박사 학위를 보유한 '공부하
는 지도자'로도 잘 알려진 김 전 감독은 성남일
화(현 성남FC)~강원FC 등을 거치며 실력을 발

휘했다.

이르면 19일 전북현대 원정경기부터 '김학범
체제'가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김 전 감독의 선임에 비롯한 코칭스태
프 쇄신으로 시민구단 광주가 갖고 있는 근본적
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든든한
배경이 없는 광주는 재정적 어려움 탓에 정상적
인 전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올 시즌 역시
정조국(33·강원FC) 등 주축선수들의 이탈이 순
위 추락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남 감독의 중도사
퇴 역시 돈 없는 팀의 한계 연장선상에 있다. 광
주 구단 역시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딱히
뚜렷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아쉽다. 돈과 실력이 정비례하는 프로스포츠의
세계는 그래서 정글보다 훨씬 냉혹하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칼바람 부는 K리그

강원 최윤겸·광주 남기일 감독 자진 사퇴
팀마다 분위기 전환 위해 감독교체 초강수

K리그 클래식(1부리그) 무
대에서 감독 교체 바람이 불
고 있다.

'KBB하나은행 K리그 클
래식 2017' 26라운드가 끝
난 뒤인 8월 14일 강원FC
최윤겸(55) 감독과 광주FC
남기일(43) 감독이 나란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두 사람 모두 성적부진에
따른 자진 사퇴였다.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
그 진출을 목표로 했던 강원
은 한때 2위까지 올랐으나
최근 7경기에서 1승2무4패
로 부진하면서 순위가 푹 떨어
졌다. 강원은 10승7무9패(승점37)로 6위에 머
물려 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은 3위 팀까
지 준다. 강원과 3위 수원삼성(13승7무6패·승
점46)과 승점 차이는 무려 9점이나 난다.

광주는 올 시즌 25경기에서 4승7무14패(승점
19)로 K리그 클래식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남
감독은 광주를 2시즌 연속 클래식 무대로 이끌
었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현재 페이스라면 K리
그 철폐지(2부리그) 강등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K리그 클래식은 후반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순
위가 어느 정도 굳혀져가고 있다. 상위스플릿에
있는 팀이긴, 하위스플릿에 있는 팀이건 각자 놓
인 상황에서 경기력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는 팀
들은 분위기 전환이 절실하다.

시즌 도중인데다 이적시장이 닫혀 선수단 구
성 변화를 통한 전력 상승과 분위기 전환을 이끌
기는 어렵다. 이럴 때 팀 분위기에 가장 큰 충격
을 줄 수 있는 변화는 바로 사령탑 교체다. 그래
서 감독에게 해고는 숙명이다.

최윤겸 감독은 강원 FC 챔피언스리그 진출, 남
기일 감독은 광주의 클래식 잔류를 위해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을 택했다. 최 감독은 "바뀐 분위
기 속에서 강원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목표를
이루길 기원한다"고 했고 남 감독 역시 "광주는
저력이 있다.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덕담을 남기
고 정든 팀과 작별했다.

이처럼 해마다 8~9월은 감독들에게 계절의 변
화와 함께 신상의 변화를 실행하는 시기다. "새
벽 공기가 차가워지면 누구보다 먼저 목덜미가 서
늘한 것을 느낀다"고 털어놓은 감독도 있다. 최
감독과 남 감독의 사퇴는 '칼바람'의 시작일 뿐
이다. 기대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한 팀 감독들
은 상·하위 스플릿 구도가 확정되는 최종 33라
운드까 가까워질수록 사퇴의 수령에서 벗어나
기 어렵다. K리그 클래식의 남은 레이스는 팀의
승패가 곧 감독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서바이벌
게임'이 될 전망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이번엔 퇴장 후 심판 밀쳐 5경기 출장정지+벌금

호날두 '악몽'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레알 마드리드)의 2017~2018시즌 출발이 연이어
피고 있다. 탈세 혐의로 개박을 앞두고 범정에 출두한 데 이어 이번엔 심판
을 밀쳐 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스페인 마르카 등 현지 외신은 8월 15일(한국시간) "스페인왕립축구협
회(REEF)가 호날두에게 총 5경기 출장정지를 비롯해 3805유로(한화
약 512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레알 마드리드 구단에도 1750유로(약
23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는 호날두가 14일
FC바르셀로나 원정으로 치른 2017 수페르코파 1차전에서 퇴장 직
후 심판을 밀친 행위에 따른 제재다. 호날두는 후반 35분 결승골을
넣은 뒤 상의를 벗어 엘로카드를 받았고, 할리우드 액션으로 다시
경고를 받아 퇴장 당했다.

주심의 퇴장선언 직후 호날두가 심판을 밀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REEF는 결국 징계를 최종확정했다. 호날두는 이
번 출장정지로 9월 중순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바르셀로나와 수페르코파 2차전은 물
론 프리메라리가 4경기가 징계기간에 포함된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8월 14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17 수페르코파 1차전에서 심판의 퇴장 선언에 흥분하고 있다. 퇴장 직후 심판을 밀친 호날두는 스페인왕립축구협회로부터 5경기 출장정지와 3805유로(약 512만원)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바르셀로나스페인 | AP뉴시스

EPL 사우샘프턴마저 삼킨 '차이나 머니'

중 가오 지성 가문, 약 3110억원에 인수

국제축구시장을 향한 중국의 투자가 끊임없
이 이뤄지고 있다.

2017년 4월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AC밀란
이 인수되며 이어 또 하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구단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다. 잉글랜드 사

우샘프턴의 카타리나 리브허 구단주는 8월 15일
(한국시간) "중국의 사업가 가오 지성 가문이 구
단 주식의 80%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인수 금액은 2억1000만 파운드(약 3110억원)
로 추정된다. 당초 중국기업이 사우샘프턴 인수
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업이 아닌 개
인 투자였음이 드러났다. 가오 지성과 그의 딸

넬리가 인수전의 주인공이었다.

리브허 구단주는 "이번 투자로 사우샘프턴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지난
몇 년간 팀이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팬층은 성
과를 얻었는데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
다. 팀 발전을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리브허 구단주는 가오 가문과 사우샘프턴의
장기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할 계획임을 공개적
으로 알렸다.

중국 자본이 글로벌 축구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이미 애스턴 빌라, 버밍엄, 울버햄프턴, 레딩 등
챔피언십(2부리그) 구단 일부가 중국 자본가들
의 손에 넘어갔다. 프리미어리그 구단 중에는
2016년 6월 웨스트브로미치가 중국투자자의 품
에 안겼다. 완전 인수는 아니지만 2015년에는
프리미어리그 강팀 중 하나인 맨체스터 시티가
전체 주식의 15%를 중국 투자자에게 넘긴 사
례도 있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그것 참 신통하다! 붙이고 확인하세요

12步 불편한 곳에 붙이세요!
시원함에 한번 놀라고 만족감에 또한번 놀란다!
신통방통-강력한 원적외선 칩 부착 패치

아하!
이게 바로 소문으로만 들던
바로 그 제품이구나!

가대하셔도 좋습니다!
과학적 원리입니다!
간편하고 쉽습니다!

운동전후 남녀노소 구분없이 사용가능

(주)솔원한방제약 **구입문의 1670-5465**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365 **센스맥**

그것 참 시원하구나~!!
변을 속~ 나오게 하는~

▶ 이침마다 상쾌하게 365센스맥-배변의 비밀을 풀었다!
올바른 식습관과 풍부한 식이섬유 섭취도 중요하지만 365 센스맥으로 장
내 환경을 개선하여 장 스스로 유익한 미생물 증식 및 운동 능력을 키워
튼튼하고 건강한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 굵고 시원하게 ~ 배변으로 몸속 헬원까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짜면 비교적 건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는 생명활동에 위해 먹은 3~10kg 내외의 음식물이 항상 장에 머물러 있
게 됩니다.

365 센스맥은 이런 음식물이 장내에서 장시간 머물러 있는
현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65센스맥은 알로에 아보레센스가 함유되어 대
장을 자극하고 대장 내의 수분량을 높여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며 부원료인 삼백초, 하수오,
굴피, 변행초, 무세 등의 식물원료로 장기간 설
위하셔도 안전합니다.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장
의 운동을 도와 리듬을 되살려줍니다.

저렴한 가격에 기분 좋아지고~
제품 성능에 또한번 기분 좋다!

가격 파괴 **가격불패!**
누구든지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가격을
논하지 않고 파격가에 보내드립니다!

장속까지 시원하게!

자신있게 보내드립니다! 간편하게 하루 두번
아침이면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변을 속~ 나오게 하는 365센스맥 전문상담사
상담문의 : 1600-2865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평소엔 장 기능이 약하신 분
- ▶ 시원하게 배변을 못 보시는 분
- ▶ 항상 배가 더부룩하신 분
- ▶ 배변이 힘든 나이든 분
- ▶ 뱃속에 가스로 불편하신 분
- ▶ 불규칙한 배변시간을 가지신 분
- ▶ 화장실에 자주 가거나 오래 앉아 계신 분